

2022년 1분기 중국 무역 동향

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

2022. 4. 18.

T. (86-10) 6505-2671/3 / E-mail : beijingk@kita.net

◎ 요약

○ (수출) 1~3월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5.8% 증가

- 1분기 중국의 수출은 지속적인 플러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기계 및 전자제품 수출입 호조와 함께 태양전지·리튬 배터리·자동차 품목 수출이 전년 대비 100.8%, 53.7%, 83.4%(위안화 기준)으로 큰 성장세를 보임
- 3월 수출은 1~2월 대비 증가 폭이 둔화하였으나 시장 예상치를 상회함

○ (수입) 1~3월 중국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9.6% 증가

- 1분기 중국의 반도체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9.6% 줄어들었으나, 코로나19 산발적 확산 및 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단가가 급등함에 따라 1분기 반도체 수입액은 작년 1분기보다 14.6% 증가
- 3월만 놓고 보면 수입은 1년 7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며,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내수 소비가 위축됨

1 수출입 동향

- 1~3월 누적 수출액은 15.8% 증가한 8,209억 2천만 달러, 누적 수입액은 9.6% 증가한 6,579억 8천만 달러, 무역수지는 1,629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
- 그중 3월 수출액은 14.7% 증가한 2,760억 8천만 달러, 수입액은 0.1% 감소한 2,287억 달러, 무역수지는 473억 8천만 달러 흑자 기록

< 중국의 수출입 추이 >

(단위: 억 달러, %)

구 분	2018	2019	2020	2021	'22.1~3월
수 출	24,874 (9.9)	24,984 (0.5)	25,906 (3.6)	33,640 (29.9)	8,209.2(15.8)
수 입	21,356 (15.8)	20,769 (△2.8)	20,556 (△1.1)	26,875 (30.1)	6,579.8 (9.6)
수 지	3,518	4,215	5,350	6,764	1,629.4

출처 : 중국 해관총서

- 중국 1분기 수출입 총액은 14,789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.0% 증가했으며, 그중 3월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7.5% 증가한 5,047억 9천만 달러 기록. 중국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일부 지역 봉쇄 등의 영향으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오던 월별 수출입 총액 증가율은 3월 한 자릿수로 감소함

* (참고) 월별 수출입 증가율 추이 ('21.12월) 20.3% → ('22.1~2월) 15.9% → ('22.3월) 7.5%

- 중국 '제로코로나'정책의 일환인 일부 지역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3월 대외수출은 예상치를 상회하였으나, 3월 대외수입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마이너스를 기록함
- (수출) 글로벌 제조업 생산 회복 영향으로 1분기에는 기계 및 전자제품 수출입 호조세가 두드러졌으며, 그중 태양전지, 리튬 배터리, 자동차 품목 수출은 전년 대비 100.8%, 53.7%, 83.4%(위안화 기준) 증가
- (수입) 3월 수입은 2020년 8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며, 중국 내 여러 지역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재수 소비 억제효과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
- 중국 일부 지역 봉쇄 조치, 교통 통제 및 조업중단 조치 등 강력한 방역 조치 시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2분기 중국의 수출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
 - 최근 상하이 지역 봉쇄 여파로 중국 반도체·전자업체뿐 아니라 중국에 소재한 주요 글로벌 IT·화학공업 기업 공장마저 조업을 중단하면서 향후 생산 차질이 확대되고, 수출입 지연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
 - 중국 해관총서(海關總署)는 방역조치에 따른 수입 신고 지연, 물류 차질 등의 요인으로 4월에도 수입 감소가 이어질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단계적으로 지역 봉쇄가 완화되면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

< 수출입 실적 및 전망에 대한 국내외 기관 평가 >

구분	기관	주요내용
중국	해관총서 (海关总署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반적으로 1분기 중국 대외무역은 양호한 실적을 보였으며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좋은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 - 1분기에는 기계 및 전자제품 수출입 호조세가 두드러졌으며, 그중 태양전지, 리튬 배터리, 자동차 품목 수출은 전년 대비 100.8%, 53.7%, 83.4%(위안화 기준) 증가 - 1분기 중국과 14개 RCEP 협력국 간의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6.9%(위안화 기준) 증가하였으며, 중국 전체 대외무역의 약 30.4% 비중을 차지함 - 중국 분기별 대외무역 실적은 2020년 3분기부터 7분기 연속 전년 대비 플러스 성장세를 보임 - 3월 수입 감소 주요 원인에는 중국 코로나19 확산 통제로 인한 수입 신고 지연, 물류 차질 등이 있으며, 4월에도 수입 감소가 이어질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 다시 반등할 것으로 전망
	차이신연구원 (财信研究院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월 미국으로부터의 대두, 면화 등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향후 대미 수입 규모가 커지고 미·중 무역흑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 - 최근 글로벌 제조업 PMI 등 주요 경기지수가 하락하는 추세이며, 주요 선진국 경제 성장 둔화 영향은 향후 중국의 대외무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대외 수출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
	중신증권 (中信证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영향으로 1분기 홍콩지역 수요 수축이 심해졌으며, 중국의 대홍콩 수출액은 감소세를 보임 -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은 수출보다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, 내수가 위축되어 주요 수입시장인 ASEAN, EU, 미국, 중남미 지역으로부터의 1분기 수입증가율은 모두 한 자릿수로 감소함 - 중국과 RCEP 협력국 간의 무역 규모가 커짐에 따라, 올해 연간 대외무역 성장세 견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
해외	로이터 (Reuters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 전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으며, 3월 중국과 러시아 양국 간 무역증가율은 12.76%로 1~2월(25.7%) 보다 둔화하였으나 같은 기간 전체 지역과의 무역증가율보다 앞서고 있음 - 3월 중국의 원유 수입은 14% 감소했으며, 가스 수입량은 2020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최저치를 기록함 - 중국 3월 무역흑자는 예기치 않은 수입 감소로 인해 시장 예상치인 224억 달러(약 26조 원)보다 두 배 이상 높은 473.8억 달러(약 56조 원)를 기록함
	블룸버그 (Bloomberg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월 수입증감률(△0.1%)은 시장예상치인 8.4%를 훨씬 밑돌았으며, 수출증감률(14.7%)은 예상치인 12.8%보다 높았으나 1~2월(16.3%)보다 둔화함 - 러시아-우크라이나 충돌 이후 급등하는 원자재가격은 수입 수요를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 - 일부 지역 봉쇄로 인한 공급망 혼란, 물류 차질 등의 타격은 4~5월 수출입 실적에도 반영될 것으로 전망
	SCMP (South China Morning Post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의 수입 감소에 이어 수출도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수출입 증가세가 둔화할 경우, 중국은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인 5.5%달성을 위해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에 더 의존해야 한다고 분석 -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중국 항만 물류인력 부족 영향으로 중국 8대 항만의 3월 컨테이너 처리량은 0.8% 감소하였음

출처: 각 기관 및 언론사 발표 (2022. 4. 14)

- (국가별 동향) 미국(16.7%) 및 EU(23.3%), ASEAN(12.3%), 중남미(20.6%), 아프리카(18.2%) 등 주요 지역으로 수출이 증가
 - 동북아경제권 내 일본(8.3%), 한국(17.0%)으로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홍콩(△6.0) 및 동남아시아 대표 교역국인 베트남(△3.9%)으로의 수출은 감소
 - 수입의 경우, ASEAN(8.8%), 중남미(3.6%)를 포함하여 대만(14.1%), 한국(13.0%), 미국(0.8%), 일본(0.4%) 등 주요 지역 및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EU(△4.5%), 호주(△7.5%), 독일(△4.8%)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

< 1~3월 중국의 TOP10 수출입 대상국(지역)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수 출			수 입		
	국가별	금액	증감률	국가별	금액	증감률
1	미국	1,389	16.7	*ASEAN	943	8.8
2	*EU	1,358	23.3	*EU	701	△4.5
3	*ASEAN	1,181	12.3	대만	622	14.1
4	홍콩	688	△6.0	한국	533	13.0
5	*중남미	556	20.6	*중남미	505	3.6
6	일본	419	8.3	일본	477	0.4
7	한국	369	17.0	미국	470	0.8
8	*아프리카	352	18.2	호주	328	△7.5
9	베트남	308	△3.9	아프리카	297	29.3
10	독일	287	17.0	독일	270	△4.8

출처 : 중국 해관총서 *EU, ASEAN, 중남미, 아프리카 등에는 상기 개별국가 실적 포함됨

- (품목별 동향) 코로나로 인한 물류 지연 등으로 각종 품목의 단가가 상승하면서, 1분기 중국 주요 상품의 수출입 증가율에서 금액 기여도가 증가하고 수량 기여도는 낮게 나타나는 경향
 - 수출 1위 품목인 컴퓨터 및 주변기기(비중 5.3%), 2위 집적회로(비중 3.3%), 3위 방직실 및 직물(비중 3.1%) 등의 수출액이 각각 전년 동기대비 9.7%, 23.2%, 15.1% 증가

- 수입 1위 품목인 집적회로(비중 11.3%)는 전년 동기대비 수량은 9.6% 감소했으나 금액은 14.6% 증가. 2위 원유(비중 8.6%)는 전년 동기대비 수량은 8.1% 감소했으나 금액은 39.4% 증가

< 1~3월 중국의 TOP10 수출품목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품 목	수량 기준		금액 기준		
		수량	증감률	금액	증감률	비중
1	컴퓨터 및 주변기기	-	-	617	9.7	5.3
2	집적회로	703억 개	△4.6	387	23.2	3.3
3	방직실 및 직물	-	-	366	15.1	3.1
4	의류 및 부자재	-	-	357	7.4	3.1
5	휴대폰	19,579만 대	△16.9	357	5.3	3.1
6	플라스틱제품	-	-	242	16.9	2.1
7	가전제품	81,097만 대	△7.9	215	△5.3	1.8
8	자동차 부품	-	-	188	5.9	1.6
9	철강	1,318만 톤	△25.5	186	22.8	1.6
10	가구 및 부품	-	-	168	3.9	1.4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< 1~3월 중국의 TOP10 수입품목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품 목	수량 기준		금액 기준		
		수량	증감률	금액	증감률	비중
1	집적회로	1,403억 개	△9.6	1,072	14.6	11.3
2	원유	12,785만 톤	△8.1	812	39.4	8.6
3	철광석 및 정광	26,836만 톤	△5.2	299	△34.8	3.2
4	식량(곡류)	3,700만 톤	△1.5	183	22.4	1.9
5	천연가스	2,782만 톤	△5.1	174	68.7	1.8
6	컴퓨터 및 주변기기	-	-	159	17.2	1.7
7	동광석 및 정광	635만 톤	6.7	156	12.7	1.6
8	미단조 동 및 동재	1,473,340 톤	2.6	149	22.2	1.6
9	초기 형태의 플라스틱	789만 톤	△14.9	149	△0.1	1.6
10	자동차(새시 포함)	22만 대	△4.5	139	9.4	1.5

출처 : 중국 해관총서

- 3월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는 전월의 50.2보다 소폭 감소한 49.5 기록, 생산자물가지수(PPI), 소비자물가지수(CPI)는 각각 전년 동기대비 8.3%, 1.5% 상승
 - 3월 PMI는 5개월 만에 기준선(50)을 하회하였으며, 주요 원인에는 중국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제조업 생산 감소 및 경기둔화 등이 있음
 - 중국 내 코로나19 산발적 확산 및 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국제운송비 및 글로벌 상품가격 상승 영향으로 3월 CPI(1.5%)는 3개월 만에 다시 1%대로 상승

< 최근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>

구 분	2019	2020	2021	'22.1월	2월	3월	
경제성장률(%)	6.0	2.2	8.1	4.8			
소매판매 증감률(%)	8.0	△3.9	12.5	6.7	6.7	△3.5	
고정자산투자 증감률(누계, %)	5.1	2.9	4.9	12.2	12.2	9.3	
산업생산 증감률(%)	5.7	2.8	9.6	7.5	7.5	5.0	
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MI (%)	50.2	51.9	50.3	50.1	50.2	49.5	
소비자 물가지수 CPI (%)	2.9	2.5	0.9	0.9	0.9	1.5	
생산자 물가지수 PPI (%)	△0.3	△1.8	8.1	9.1	8.8	8.3	
실업률(기말, %)	5.2	5.2	5.1	5.5			
외국인직접투자(억 \$, %)	1,381(2.4)	1,444(4.5)	1,735(20.2)	158.4(17.6)	-	-	
외환보유액(억 \$, 기말)	31,079	32,165	32,502	32,216	32,138	31,880	
평균 환율(위안/달러)	6.8985	6.8974	6.4512	6.3588	6.3470	-	
한국의 대중국 무역 (억 \$, %) *한국 통계기준	수 출	1,362 (△16)	1,326 (△2.7)	1,629 (22.9)	133.3 (13.1)	130.1 (16.0)	156.3 (16.6)
	수 입	1,072 (0.7)	1,089 (1.5)	1,386 (27.3)	131.7 (22.3)	104 (15.2)	126.2 (15.9)
	수 지	290	237	243	1.6	26.1	30.1

출처 : 중국 국가통계국, 중국 상무부, 중국 인민은행,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무역협회

주 : 3월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데이터는 잠정치이며, 중국의 1~2월 소매판매 증감률, 고정자산투자 증감률, 산업생산 증감률은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한 단위로 발표함